

◆머느리권씨 열전 28-3

## 숙의 권씨(권중비 추밀공파 19세, 권완의 딸), 단종대왕의 후궁

### 교훈과 기록

한 사람의 생애는 한 시대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권씨의 삶은 화려한 궁중의 기억보다, 그 이후의 세월이 더 길었다. 그녀의 이름은 사서(史書)의 몇 줄에 머물지만, 그 몇 줄은 조선 정치의 본질을 선명하게 비춘다. 그 생애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세 가지다.

권력은 잘나, 생존은 지속, 그녀는 한때 단종의 후궁이었다. 임금의 곁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왕권이 무너지는 순간, 그 곁에서 있던 사람들 역시 함께 떨어졌다. 궁궐의 비단은 벗겨지고, 신분은 뒤집혔다.

권력은 눈부시되 오래 머물지 않는다. 반면 생존은 길고도 질기다.

그녀는 왕의 후궁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역적의 딸로, 또 궁궐밖 노년의 여인으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길었다. 찰나의 영화보다 지속되는 것은 결국 살아남는 일 자체였다.

연좌제의 잔혹, 친부 권완의 선택과 운명은 곧 딸의 운명이 되었다. 조선의 법은 개인을 넘어 가문을 묶었다. 총의와 역모의 판단은 개인의 공과(功過)를 넘어서 혈연 전체를 뒤흔들었다. 여인의 삶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딸인가'에 의해 규정되는 현실. 연좌제는 법이었지만, 동시에 비극이었다. 그것은 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으나, 인간의 삶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사의 재평가, 세월이 흐른 뒤, 조정은 단종 충신을 다시 불러 세웠다. 정조 대에 이르러 권완은 창절사에 배향되며 충절의 이름을 되찾았다. 생전에는 역적이었으나, 사후에는 충신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복권이 곧 삶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권완의 명예는 되돌려졌으나, 권중비의 가난한 노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역사는 이름을 고치지만, 흘러간 세월까지 고쳐주지는 못한다. 기록은 냉정하다.

몇 줄의 사실만 남기고, 눈물과 허기는 적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록 사이에서 한 사람의 숨결을 읽는다. 왕의 후궁에서 노년의 빈한한 여인으로 이어진 긴 시간. 그 삶은 묻는다. 권력은 누구의 것이며, 책임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리고 역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쓰이는가.

“패한 정의는 사라지는가.” 역사는 대개 승자의 기록으로 남는다. 폐위된 왕, 몰락한 신하, 연좌된 가문은 변방의 각주로 밀려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역사가 드러난다. 바로 견딤의 역사다. 숙의 권씨의 생애는 그 물음에 대한 조용한 응답이다.

왕의 후궁, 역적의 딸, 노비로 전락했다가 다시 풀려나 80년을 넘겨 세를 마친 여인. 그녀의 이름은 능호도, 화려한 묘역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긴 세월을 버텨낸 생존 자체가 하나의 증인이 되었다.

정의는 때로 패한다. 권력은 정의를 밀어내고, 판결은 힘의 방향을 따른다. 그러나 패한 정의가 곧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억 속에 남고, 세월 속에 잠기며, 언젠가 다시 불러 나온다. 단종이 복위되고 충신이 재평가되듯, 역사는 시간이 흐른 뒤 스스로를 고쳐 쓰기도 한다.

궁궐의 문은 단했고, 왕의 자리도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냈다. 굶주림 속에서도, 외방의 세월 속에서도, 이름 없이 늙어가면서도. 그 생존은 침묵 속의 저항이었고, 긴 한(恨)의 지속이었다. 영화가 던진 질문은 결국 한 여인의 삶으로 수렴된다.

정의는 패배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통해, 세월을 건디는 숨결을 통해, 조용

히 살아남는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교훈이 된다.

### 비슷하고도 다른 세 여인의 운명

조선 제6대 왕 단종은 열일곱에 생을 마쳤다. 그러나 그의 곁에 서 있었던 세 여인은 팔십을 넘겼다. 이 기묘한 시간의 대비 앞에 서면, 역사는 언제나 왕의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 왕은 중심에 있었으나 오래 머물지 못하고, 주변에 서 있던 이들은 변방으로 밀려났으되 끝내 시간을 견디며 살아남았다.

왕비였던 정순왕후 송씨는 1440년에 태어나 1521년까지 살았다. 사릉에 묻혀 81세로 생을 마쳤다. 왕의 재위는 짧았지만, 왕비의 기억은 길었다. 궁을 떠난 뒤에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폐위된 남편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왕관은 사라졌으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숙의 권씨 권중비는 1439년에 태어나 1521년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82세. 그러나 그녀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부친 권완이 능지처참을 당하며 가문은 무너졌고, 연좌의 그림자는 딸의 삶을 덮쳤다. 왕의 후궁에서 역적의 딸로, 신분은 한순간에 추락했다. 같은 간택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권력의 칼날은 누구에게는 비껴 가고 누구에게는 깊이 찔렀다.

그리고 숙의 김씨. 1519년 실록에 “금년 80세가 지났다”는 기록이 있어 1440년경 출생으로 짐작된다. 1525년 충주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84~85세 안팎의 장수였다. 세 여인은 81, 82, 84세. 왕보다 네 배 이상 긴 시간을 살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상산 김씨 김사우라는 이름에서 답을 찾게 된다. 1415년에 태어나 1464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단종 폐위 이후 대신들의 탄핵을 받았으나 세조는 그를 공신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여러 관직을 거쳐며 그는 살아남았다. 송현수와 권완이 복위 사건으로 처형될 때, 김사우는 살아 있었다. 그 생존이 곧 딸의 생존이 되었다.

같은 궁궐, 같은 시절, 같은 남자를 곁에서 모셨으나 세 여인의 운명은 갈랐다. 정순왕후는 왕비라는 정통성으로 살아남았고, 숙의 권씨는 역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짊어졌다. 그리고 숙의 김씨는 아버지의 침묵과 처신이 만든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평온하게 삶을 누렸다.

그러나 그 평온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버지가 권력 앞에서 취한 침묵의 값을 딸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 숙의 김씨는 충주의 외딴집에서 긴 노년을 보내며, 과연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이해했을까. 역적의 딸이 되어 떠돌던 숙의 권씨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 가슴 한편이 저러오지 않았을까.

그를 기억하며 살아낸 세 여인의 시간은 한 세기에 걸쳐 흘렀다. 정순왕후는 사릉에서, 숙의 권씨는 기록 저편에서, 숙의 김씨는 충주의 어느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단종을 기억했다. 그들은 모두 왕을 먼저 보내고, 긴 세월을 홀로 견어야 했다.

그래서 문득 깨닫는다. 역사는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역사는, 그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긴 숨결 속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단종은 열일곱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세 여인은 여든을 넘어서까지 살아내며 역사를 이어받았다.

세 여인, 세 가지 운명.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 모두 왕을 알고도, 왕을 기억하며, 왕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그 긴 세월을 견디던 이들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아닐까 한다.

### 조선 왕실의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

왕비와 후궁을 뽑는 간택(揆擇)은 겉으로는 예법과 절차를 따르는 국가의 의식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권력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특히 단종 이후의 정국에서 송씨, 권씨, 김씨로 이어지는 왕실 여성들의 선택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정치의 설계도와도 같았다. 어린 단종의 즉위는 곧 권력 공백을 의미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그 틈을 입었다.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단종을 둘러싼 외척과 혼맥을 약화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왕의 처가와 후궁의 가문은 곧 정치적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송씨. 곧 정순왕후는 단종의 정비로 간택되었다.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으나, 남편의 폐위와 함께 왕비의 자리에서도 밀려났다. 왕비의 존재는 정통성의 상징이었다. 세조에게 단종의 정통은 불평한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를 약화시키는 일은 곧 왕비의 지위를 흔드는 일이었다.

숙의 권씨 또한 단종의 후궁으로 간택되었다. 권씨 가문은 명문이었고, 조정에서 일정한 기반을 가진 집안이었다. 그러나 1457년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권씨의 부친 권완은 처형되었다. 후궁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었고, 연좌제에 묶여 노비로 전락했다. 혼인은 가문을 높이기도 하지만, 권력이 바뀌는 순간 가문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씨 역시 왕실과 혼맥을 맺은 가문이었다. 김씨 세력은 조선 전기 내내 조정의 한 축을 이루었고, 혼인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세조가 집권한 뒤에는 단종과 연결된 인맥이 차례로 정리되었다. 혼인을 통해 맺어진 인연은 곧 제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일련의 간택은 겉으로는 예법에 따른 왕실 행사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세조의 정권 안정과 직결되었다. 단종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는 외척 세력을 분산시키고, 혹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혼맥이 재편되었다. 왕실 여성들의 삶은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었다.

간택은 꽃가마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치의 수레였다.

왕비와 후궁의 자리는 영광처럼 보였으나, 그 영광은 권력의 방향에 따라 쉽게 뒤집혔다.

세조의 집권은 강력했고, 조선은 이후 안정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 안정의 이면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여성들의 눈물과 연좌로 무너진 가문들의 한이 있었다. 송씨는 폐비의 세월을 견뎌고, 권씨는 노비로 떨어졌다가 늙어 생을 마쳤으며, 김씨 또한 정치의 파고 속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역사는 왕의 업적을 크게 기록한다. 그러나 그 왕권을 둘러싼 혼맥의 설계와 간택의 이면까지 세세히 적지는 않는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고 훗날 세조로 즉위한다. 이 과정에서 궁중 내부와 대신들 사이에는 정보 수집과 밀고, 정치적 줄서기로 변했다.

오리더 분명히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숙의 권씨의 부친 권완처럼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처형된 인물들이, 이들은 세조에게 반대한 쪽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반대로 어떤 가문이 처벌되지 않고 존속했다면, 최소한 적극적인 반대 세력은 아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길 기자

## 증여세 절세 전략 ⑥

권오형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추밀공파 35세·삼덕회계법인대표



### 질문6) 상속세에서 1년2억, 2년 5억 사용처불명 인출금액 과세 관련사항

**답변)** 상속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산 대상 금액

①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②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③ 재산 처분 대금, 금전 인출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 종류를 불문하고 합산하여 판단한다.  
④ 이러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한다.

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정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기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금액에 산입한다.

즉, 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⑦주의사항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단순히 해당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통상적인 생활비나 간병비 등은 제외될 수 있지만, 이를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

이 규정은 사망 전 재산 처분이나 인출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상속세 과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 처분 및 인출 내역에 대해 철저한 소명이 필요하다.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고 제안합니다.



## 항렬자(行列字)에 대하여

행원(杏園) 권도현 대총회 중무위원

옛날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지역 호족(豪族)마다 항렬자를 제정해서 쓰곤 하였다. 그래서 같은 파족 간에도 은행 항렬자를 쓰는 집안도 있고 십간순(十干順: 甲乙丙丁...), 숫자순(數字順: 一三三五五六)도 있으며 우리들은 거의 모든 집안들이 오행 항렬자를 쓰고 있었으나 21세 남강공(南崗公) 휘(諱) 상(常)의 후손 문중은 심중대덕경세인인(心中大德經世彦人)의 8자의 가훈을 항렬자로 삼고 있다. (心(22), 中(23세), 大(24세)...34세의 대표적 인물이 이혁씨(전 대총회 회장)인데 경(經)자의 항렬이다. 경 자의 실사(系)자가 들어있는 이(鎭)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이중(二種)의 글자로 쓴다. 이와 爨인데 중간 쌀 미(米) 자 옆자리에 분(分)자는 아니고 사(系)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

오행은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이어서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가 있는 글자를 항렬자로 정하여 오대(五代)마다 같은 변의 글자를 쓰곤 하였는데 추밀공파 건강공(靖簡公)계에서는 32세는 종(鍾),

33세는 수(洙), 34세는 식(植), 35세는 병(柄), 36세는 주(周), 37세는 현(鎭)을 쓰고 있다.

북야공파(僕野公派) 서부 경남 일대에서는 16세 휘諱 집덕(執德(군자감정(軍資監正)公) 계에서는 32세는 집集0, 33세는 0환환, 0희熙, 34세는 載0, 35세는 0鉉, (익현(翼鉉, 철현(鐵鉉, 도현(道鉉), 36세는 海0 海玉(전 대총회장), 해운(海胤, 37세는 0根(우근(吳根, 대근(大根, 배근(培根) 이렇게들 쓰고 있으며 같은 북야공파에서도 판서공계(判書公係) 경복영천 일대에서는 또 다른 오행 항렬자인 32세 0연淵, 33세 상相0, 34세 0섭섭, 35세 규圭0, 36세 0타鐸을 쓰고 있으니까 혼돈(混沌)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항렬자를 金, 水, 木, 火, 土의 오행(五行)을 사용하여 왔으나 각 문중마다 항렬자가 다르고 통일이 되지 않아 세수(世數)를 잘 알 수가 없어서 1903년(광무 7)인 계묘년(癸卯年)에 대총회에서 일(一), 이(二), 삼(三), 사(四) 등 숫자로 항렬자를 아래와 같이 쓰기로 결정하였다.

세번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항렬	丙○	重○	泰○	擘○	五○	赫○	純○	容○	九○	升○
예비항렬	大萬友	宗仁武	春龍正	憲鐸爵	肅梧炳	奇景英	宅處虞	俊說益	塾軌藝	斗協士
세번	41세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항렬	○一	○元	○全	○澤	○晝	○溲	○七	○駿	○旭	○甲
예비항렬	백百	완完	장長	서曙	오五	연亮	건虔	태兌	구究	남南

##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감으로 이 지구는 병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민족은 오직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올 것이며, 지금도 UN의 수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우리 한민족은 곧 천손이며, 인류의 영혼이다.

### 노랑 종달새의 기도

하나님!

저는 바람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숨결은 세상만물에게 목숨을 줍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로 당신의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를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건드려 주시고

저의 눈이 늘 자주 빛의 석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손이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존중하게 해주시고

저의 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밝혀 주소서

당신이 저의 부족에게 가르쳐주시려 하신 것을

저도 알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과 바위 사이에 숨겨둔 가르침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는 저의 형제들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가장 큰 적인 제 자신과 싸우기 위한 힘을 원합니다.

제가 깨닫힌 손과 올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저 석양이 지듯이 저의 삶이 다할 때

저의 영혼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하소서

(다음호에 계속)